

광주시장, 강운태·이용섭 본격행보에 강기정 저울질 전남지사, 박지원 가세 여부 이낙연·주승용측 촉각 민주 시·도지사 경쟁구도 요동

지방선거 D-149

6·4지방선거가 1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 경쟁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덧붙인 광주·전남에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의 돌발 움직임이 새해 벽두부터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의 대결구도가 가시화하면서 벌써부터 당내 경선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는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간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3선의 강기정 의원까지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경쟁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전남지사 경쟁구도도 일찌감치 출마 행보를 보여온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의 양자 대결에 최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이 가세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광주시장=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는 현재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강기정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강 시장과 이 의원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강기정 의원은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강 시장은 자신은 시정에 전념하고 있다지만, '창조포럼' 등 주변 조직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강 시장에 대한 여론 상승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이 의원 또한 아직 공식적인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4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무등산 산행을 한 데 이어 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강 의원에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며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과 이 의원의 연말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의정보고회를 여는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현역 시장과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치열한 후보 다툼을 벌일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후보 지원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사=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1년 전부터 지사 선거를 준비해왔다. 여기에 김영록 의원이 뒤늦게 뛰어들어 '3파전'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신당 바람을 거론하면서 자신에 대한 전남지사 차출 여부를 주장해 당내 전남지사 경쟁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 의원과 주 의원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선두권 다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의원은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이·주 의원간 양자대결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박 의원이 새해 일부 여론조사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나 '파괴력'을 엿보게 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실제 출마하면 판세가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낙연, 주승용 의원 측은 박 의원의 가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가 전남 서부권으로 박 의원과 겹치는 이 의원 측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호남에서 안풍이 거세다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안철수 신당 후보들보다 중립감이 있다"며 "치열한 경선이 안풍을 잠재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신년하례회...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들 한자리에

지난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2014년 신년하례회'에서 6·4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강운태 시장과 강기정·이용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맨 앞줄에서 건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차대통령 "한반도 통일시대 열자" 김한길 대표 "대타협팀 만들자"

여야대표 등 초청 신년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그리고 경제 5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올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자체·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할 때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정은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정은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정은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 같은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정당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70분 가량 예정됐으며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정은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정은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인사발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타협위원

알림

'일요광장' 필진 바꿉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일요광장'이 오늘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찾아갑니다. 교육, 경제, 건강, 인권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필진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대간, 계층간 갈등에 대해 통찰하고 소통의 가능성을 찾아갈 것입니다. 광주일보 '일요광장'에 대한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 바랍니다.



김경란 교수 김용구 원장 이승헌 총장 강운주 센터장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성신여대, 중앙대 문학박사 ▲삼성복지재단 신당삼성어린이집 개원·원장 ▲학교법인 성신학원 성신유치원 원장 ▲경원대학교 아동학과 외래교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겸임교수

◇김용구 <미래경제개발연구원장>
▲국무총리 경제문사회연구회 선임이사 ▲대통령저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지식경영학회 부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부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자문위원

◇이승헌 <국제보육교육종합대학원 총장>
▲단국대 ▲세계적인 뇌교육자이자 뇌철학자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한국뇌과학연구원장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국민이 신이다' 등 다수

◇강운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전남대 의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아나과 의원 원장 및 (재)진실의힘 이사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공동개설의 료경영 고위과정(AHP) 수료

光州日報社

새누리, 구의회 폐지·광역단체장 연임 축소 추진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3연임이 가능한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외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 등록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중앙당의 '줄 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5면>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지방정치, 지방행정 쇠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중

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준중 사무총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 명의 지방의원 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다.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광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2014년 1월 10(금) ~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2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예향, 문화융성의 해를 열다

특집
예향, 문화융성의 해를 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 시작하는
갑오년 광주의 희망찬 발걸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남시대 개막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역동의 성년식 기대

테/마/기/획

완도
해안인의 DNA가 만든
완도의 역사, 꿈, 문화를 만나다

예향 초대석

한국출판의 지평 넓은 출판인 강갑실
사계절 인문역사서 기획 뒷이야기와
출판인 강갑실의 삶과 철학

마주앉은 해과 사람 | **'아픈상처가꽃이 된이야기'**
신작 '높고 푸른 사다리' 발표한 소설가 공지영

이달의 아티스트
꼭 닦은 열정의 동반자 **오윤환, 박선희 부부의 발레 사랑**

아시아스토리로드
화려한 자연과 소박한 심성의 나라
베트남에서 만난 예쁜 사랑의 전설

문화현장
다시 찾은 꿈을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만드는
평생교육현장의 열기

이사람 LG에서 KIA로 옮기고 제2의 전성기 꿈꾼다
'슈퍼소닉' 이대형
"2014 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땅, 속살 여행-삼척
묵묵한 바다, 그리움 솟는 동해의 겨울

세계미술관 기행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만난
인상주의·미국현대회화 걸작들

신설 연재
흥미롭고 자상한 그림 해설
미술평론가 이주현의 명화읽기
음악 속 이야기를 찾아가는
진화속의 클래식이 좋다

김오년 신년기회
**첨단과학시대에도
점술은 살아있다**
새해면 함께 되는 토정비결의 매력 분석
재미로 보는 2014 토정비결 수록

스타 데이트
'따뜻한 알 한마디'로 돌아온
배우 한혜진